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송석환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0303 인쇄 : (주)한우리SJM

2014년 (단기 4345년) 6월 30일 (월)

<http://dongguk.info>

제232호

## 모교 랜드마크 '108주년기념관' 건립

총동창회관 · 1,000석 컨벤션홀 · 국제선센터 등 들어서

**송석환 총동창회장 1억800만원 기탁**  
혜화문 일대 지하3층 · 지상4층 연면적 8천평으로



▲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계획안이 연내 착공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모교(총장 김희옥)는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앰배서더호텔 쪽으로 올려다 보이는 혜화문(중문) 일대에 총공사비 450억원을 투입, 연면적 2만6450평방미터(약 8,000평) 규모의 지하3층, 지상4층 건학 108주년기념관을 건립한다.

건학 108주년기념관에는 총동창회의 숙원사업이던 총동창회관이 들어서며, 1,000여석의 대형 컨벤션홀과 국제선센터, 불교학센터, 박물관, 전시장, 다용도 세미나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올해 개교 108주년을 맞아 모교는 지난 5월27일 제282회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모교 상징의 랜드마크가 될 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계획을 보고했다.

〈3면에 계속〉

**학교 · 재단 · 종단 방문**  
송석환 회장 신임 인사



▲ 송석환 총동창회장이 신임 인사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송석환 제27대 총동창회장은 회장 취임과 함께 신임 인사자 모교 김희옥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 정련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동창회와 학교, 재단, 종단간 상호 소통과 협력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송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28일 오전 김희옥 총장을 만난데 이어 4월9일 재단이사장실을, 4월10일에는 총무원장실을 각각 방문했다.

송 총동창회장은 김희옥 총장에게 “총동창회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학교측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108주년 기념관 건립계획 보고회가 5월20일 모교 재단이사장실에서 있었다.

불교계와 함께 하기 위한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종단 보고회가 6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자승 총무원장, 김희옥 총장, 송석환 총동창회장, 이기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불교계와 학교, 총동창회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불교계, 학교, 동문들을 망라한 108기념관 건립불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총장과 불교계 대표, 총동창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건립계획안 사전 보고회가 정

련 이사장을 비롯 김희옥 총장, 송석환 총동창회장, 법타 정각원장, 정창근 경영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

난 5월20일 모교 재단이사장실에서 있었다.

##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12명 당선

**고 길 호**

전남 신안군수  
경영학과  
전 신안군수

**나 동 연**

경남 양산시장  
무역학과  
양산시장

**서 동 융**

울산 남구청장  
사회과학대학원  
전 울산시의회 의장

**성 장 현**

서울 용산구청장  
행정대학원  
용산구청장

**안 병 용**

경기 의정부시장  
행정대학원  
의정부시장

**오 규 석**

부산 기장군수  
한의학과  
기장군수

**이 강 덕**

경북 포항시장  
대학원  
전 해양경찰청장

**이 병 선**

강원 속초시장  
사학과  
전 강원도의원

**이 상 복**

인천 강화군수  
행정대학원  
전 제주도 부지사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  
대학원  
구로구청장

**이 용 우**

충남 부여군수  
대학원  
부여군수

**차 정 섭**

경남 함안군수  
행정대학원  
함안미래발전연구원장

201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6기)에서 동문들이 대거 당선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행정대학원 석사)을 비롯 1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해 2010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배출된 12명과 비슷한 당선 분포를 보였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초선은 △무소속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행정대학원) △새누리당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사회과학대학원) △무소속 이병선 강원도 속초시장(사학과) △새누리당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대학원) △새누리당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행정대학원) 등 5명이다.

재선 이상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이성서 서울 구로구청장(대학원 박사과정) △무소속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한의학과) △새정치연합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행정대학원 석사) △새누리당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대학원) △무소속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경영학과 중퇴) △새누리당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무역학과) 등 7명이다.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서울시 김현기(새누리, 행정대학원), 김경자

(새정치민주연합, 영문과) 등 15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구시군의회 의원은 박남순 (새누리, 강남구, 행정대학원) 동문 등 37명이다. 특히 시군구의회 의원은 2010년 24명에 비해 거의 배에 육박하는 당선자를 내 동국의 저력을 과시했다.

당선자들은 모교에서 배운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철학에 투철하면서 지역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광역시도의회 의원 (15명)

- 서울특별시=△김현기(행정대학원85, 새누리, 강남구4) △김경자(영문81, 새정치, 양천구1) △박준희(행정대학원67, 새정치, 관악구1) △강구덕(대학원, 새누리, 금천구2)
- 울산광역시=△변식용(행정대학원92, 새누리, 남구1) △문병원(사회과학대학원02, 새누리, 비례)
- 경기도=△김원기(행정대학원98, 새정치, 의정부4) △김동규(대학원09, 새누리, 파주시3)
- 강원도=△남평우(농업생물78, 새누리, 인제군)
- 경상북도=△구자근(법학86, 새누리, 경기고양시)

누리, 구미시3) △김봉교(행정08, 새누리, 구미시6) △황이주(행정94, 새누리, 울진군2) △한창화(사회과학대학원05, 새누리, 포항시1) △김희수(행정, 새누리, 포항시2) - 경상남도=△제정훈(경영65, 무소속, 고성군1)

### 구시군의회 의원 (37명)

- △박남순(행정대학원06, 새누리, 서울강남구) △최민숙(행정대학원, 새누리, 서울강남구) △신동욱(무역82, 새누리, 서울성동구) △안택순(행정대학원98, 새정치, 서울양천구) △김영선(언론정보, 새정치, 서울중구) △김혜미(연극영화84, 새정치, 서울서대문구 비례) △박남순(행정대학원06, 새누리, 서울강남) △오필성(농업경제76, 새누리, 인천강화군) △김철홍(국어교육72, 새정치, 인천중구) △이창환(무역80, 새누리, 인천연수구) △안수일(미술80, 새누리, 울산남구) △안대룡(경영97, 새누리, 울산남구) △정복금(사회과학대학원02, 새누리, 울산북구 비례) △김완규(불교89, 새누리, 경기고양시) △김미현(행정대학원, 새누리, 경기고양시) △박광순(경찰86, 새누리, 경북포항시) △이철구(경영05, 새누리, 경북포항시) △정수화(사회과학대학원, 새누리, 경북포항시) △박희정(행정대학원, 새정치, 경북포항시 비례)

# 고시반 등에 총동창회 장학금

“국가 동량재로 학교 위상 제고” 당부



▲ 송석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김희옥 총장 등 모교 간부, 장학금 수혜자 등이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송석환 총동창회장(오른쪽)이 각종 고시반 대표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2014년도 제1학기 장학금으로 고시반 및 고시학사 등에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4월24일 오전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송석환 총동창회장, 전영화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과 김희옥 모교 총장과 정창근 경영부총장, 박정극 학술부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 각 고시반 지도교수, 장학생 18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 총동창회장은 “빛나는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개인의 성취는 물론 학교의 위상을 드높여줄 동량재로 성장하는 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희옥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이 모은 장학금의 의미를 잘 새겨 학업에 정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타계한 고 최혜정 동문(역사교육과)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심응석 본회 장학담당 부회장은 “앞으로 동창회 장

학금은 각 학과에 안배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각종 고시반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합격률을 높여 모교 위상 제고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고시반별로 각 3백만원과 2014학번 및 ROTC 후보생 특별장학금으로 각 2백만원씩이 전달되었다.

◆3백만원=△행정고시반 △사법시험반 △CPA반 △기술직/변리사반 △신림학사 △진성제 △정각원(건학이념)

◆2백만원=△2014학번 △ROTC

## ROTC 동문회도 장학금

ROTC동문회(회장=윤관욱)의 2014-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4월24일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장학금은 112ROTC울트라장학회(회장=성영석)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이번 학기에는 5명에게 1백만원씩 전달했다.

◆장학생 명단=△정재용(경행4) △김세중(경영4) △최승현(체교4) △김기수(행정3) △김준수(경행3)

<1면에서 계속>

## 108주년 기념관 건립

이를 위해 김희옥 총장과 송석환 총동창회장이 건립추진공동위원회장을 맡고,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건립추진공동위원회로 위촉된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지난 4월24일 108주년 기념관 건립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상징으로 1억800만원을 모교에 기탁했다.

이 랜드마크 건물은 장충동 로터리 광장에서 앰배서더호텔 쪽을 올려다 보면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서 서울의 상징건물로 드러나도록 짓게 된다. 한국불교의 최고 종립학교의 위상과 상징성이 돋보이도록 건물을 앉힐 계획이다.

건물은 2천만 불자는 물론 25만 동문과 2만여 재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장중하고 우아한 랜드마크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 이 건물은 불교계와 동문 재학생의 역량을 확인하고 대외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8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은 모금을 통해 조성한다. 스님과 불자, 동문들이 참여해 1차로 금년 10월까지 108억원을 모금하며, 2차는 11월부터 준공일까지 350억원을 모금한다.

108주년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증명으로 위촉하고, 자승 총무원장, 정련 모교 재단이사장이 고문으로 위촉된다.

한편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25만 동문의 숙원사업이던 총동창회관이 모교의 교지 위에 세우는 뜻깊은 길이 열렸다”면서 “기념관은 총동창회관 단독 건물 이상의 효과와 교통 접근성, 호환성이 뛰어나며 1,000여석의 컨벤션홀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경찰간부시험 11명 합격

지난 4월 발표된 2014년도 경찰간부후보생(경위) 시험에서 이재빈(경행99)동문 등 경찰행정학과에서 1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간부시험은 지난 2월22일 필기시험 등을 거쳐 모두 50명을 선발했다.

경찰행정학과는 또 해양경찰간부후보생 3명, 소방간부후보생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4월18일 발표된 해경간부는 일반직 6명 중 2명, 여자 1명 중 1명이 합격됐다.

###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

△이재빈(99학번, 일반) △박경열(04학번, 세무회계) △우지호(05학번, 일반) △김규형(05학번, 일반) △신준식(07학번, 세무회계) △박제찬(08학번, 세무회계) △김형

원(08학번, 외사) △임수진(08학번, 여, 일반) △장우성(08학번, 일반) △박제관(09학번, 외사) △박민선(09학번, 여, 일반)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

△김민주(02학번, 여) △이진현(05학번, 일반) △조성현(09학번, 일반)

### ▶소방간부후보생 합격자

△김양래(97학번, 일반)

# “반갑다 ‘동84’ 학우여”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추억하고 나누고 베풀다



▲ 30년만에 만난 동기들이 옛 추억을 더듬으며 명진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면서 “동국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반갑다 ‘동84’ 학우들이여” – 30년 전 동악캠퍼스에서 함께 꿈을 키웠던 친구들이 모교에 영광을 돌리고,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84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2백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4일(토) 오후 모교 본관 중강당 및 상록원에서 열려 변화된 모교 발전상을 체험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다졌다.

지난 2009년(79학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는 입학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는 해당 학번 동문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 행사를 준비해오고 있으며 행사 이후에도 등산, 골프, 여행 등 각종 소모임 결성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부 행사는 84학번 MBC 아나운서 부장 이재용(수학교육), 개그우먼 이경실(연극영화) 동문의 사회로 ▲주요 내외빈 인사말 ▲학교 홍보영상 및 80년대 추억의 영상 관람 ▲30년 후배 장학금 전달식 ▲백상 응원단 축하 공연 ▲홈커밍데이 행사 깃발 이양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84학번장학금 6,300만원 조성

이날 84학번 동문들은 참가비의 일정 부분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입학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의 전통에 따라 30년 후배인 14학번 후배들에게 6,300만원의 장학



▲ “이제 우리 자주 만나자” – 웃음꽃 만발하다.



▲ 84학번동기회(대표=오수환, 법학, 변호사) 동문 12명이 6월2일(월) 김희옥 총장을 예방하고 30년 후배인 14학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6,300만원을 전달했다.

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기들에게 행사 참여와 장학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역대 최다금액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80년대 추억의 영상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넘어 눈시울을 붉히는가 하면, 과거 동대문운동장에서 학교 야구부를 응원하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백상응원단의 리드에 따라 학교

응원가를 큰 소리로 열창하기도 했다.

김희옥 총장은 축사에서 “개교 108주년을 맞이한 올해, 여러분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동국 발전의 토대는 더욱 단단해진다. 모교가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대표로 참석한 전영화 수

석부회장은 “여러분은 동국이라는 기반 위에서 부푼 가슴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며 시련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주인공들”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 동국’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교와 동문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그 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84학번 대표위원장 오수환(법학과, 변호사) 동문은 “약관의 나이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여 꿈과 희망을 키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천명의 50대가 되었다”면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없이 행복했다. 동국대학교 84학번이라는 인연만으로 마치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로를 대했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들 모두가 이번 홈커밍데이를 토대로 30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상록원 3층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저녁식사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오랫만에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회포를 풀었다. 더불어 동문들은 이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일회성 모임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친목을 다져나가기로 약속했으며, 앞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호 · 산공89, 총동창회 부장〉

# 3차 상임위, 임원 선임 추후 매듭

## 신임회장 취임 이후 주요 활동 보고

총동창회 제3차 상임위원회가 6월 12일 오전 7시30분 종로구 인사동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석환 총동창회장을 비롯 28명의 위원중 16명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원회는 제27대 회장단 출범이후 주요 활동 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임원 선임 확정안 △제

8회 동국인친선골프대회 개최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안건인 임원 선임 확정안은 6월20일 진행되는 박종윤 고문측이 제소해온 '직무방해금지가처분' 2차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단일동창회로 임원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데 동

의하고 추후 회장이 집행부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위임했다.

또 골프대회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재 논의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GS동국노블리스카드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고 죄혜정동문 흉상 건립' 추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108호걸 모임' (가칭) 구성 등이 논의되어 3개 제안 모두 차기 상임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박종윤 고문측이 제소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진행사항 △건학 108주년 기념관(총동창회관) 건립계획 청사진 △고시반장학금 지급 △6.4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총동창회보 232호 발행계획 △홈페이지([www.dongguk.info](http://www.dongguk.info)) 오픈 △제8회 동국인친선골프대회 연기 결정 △84학번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 상임부회장 3명 추가 임명



제정스님



퇴휴스님



공석돈 동문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지난 6월12일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제정스님(89/93대학원, 서울 불국사 주지)과 퇴휴스님(80/87승가, 서울 법장사 주지)을 상임부회장으로 위촉,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정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모교 재단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퇴휴스님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을 지냈으며, 불교계 사회운동 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또 6월30일에는 경주 캠퍼스동창회 초대 회장을 지낸 공석돈(79/85회계, 백상개발 대표) 동문을 상임부회장으로 추가 위촉했다.

## 이인정 부회장 1천만원 모교 제2건학기금으로



이인정 (상학 65/72, 대한산악연맹 회장) 동문이 6월26일 모교 김희옥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동문은 총동창회에도 후배장학금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 걸쳐 6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현재 (주)태인 대표이사, 한국 - 네팔친선협회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아시아 산악연맹회장을 맡고 있다.

## 경찰간부 후보 졸업식

김은정 동문 대통령상

김민석 동문 경찰청장상

4월16일 경찰교육원에서 있은 제62기 경찰간부후보 졸업 및 임용식에서 김은정(경찰행정14, 경위) 동문이 대통령상을, 김민석(경찰행정 4, 경위) 군이 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 '동국대 총동창회 밴드' 오픈

총동창회 소통위원회가 5월1일 저녁 6시30분 서대문 A음식점에서 첫 미팅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소통위는 상견례에 이어 첫 활동으로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5월6일 석가탄신일을 기해 '동국대총동창회' 밴드를 오픈한 것을 비롯해 △'고 죄혜정동문 추모 한마당' 적극 홍보 △동문사회내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대화와 만남의 장' 추진을 비롯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6월30일 현재 '밴드' 가입 회원수는 401명으로 나타났다.

◆지도위원=김오현(체교76, BK그룹 회장, 총동창회 조직담당 상임부회장)

◆위원장=김종필(행정82, 내일신문 정치부장, 총동창회 소통담당 상임부회장)

◆위원=△강선중(경제84, 7080사무국장) △송경옥(연영84, 여자동창회 사무국장) △전성모(법학85, 법학과동문회 사무국장) △최순호(경행87, 경찰청 경정) △이세용(무역87, 조계사 종무실장) △유권준(지리교육88, 동국



▲ 밴드 메인화면.

대 전략홍보팀) △서창훈(정외88, 동국대대학원신문 편집장) △한상권(경영89, KBS 아나운서팀장) △정희완(신문방송02, 경향신문 기자)

## 재학생 취업대책 회의

재학생 취업알선을 위한 모교-총동창회 관계자 회의가 지난 5월19일 오후 3시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모교 윤성이 인재개발원장과 총동창회 범타스님 · 김환백 · 심응석 · 김진억 · 김종필 · 상임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재학생 후배들의 안정적 직장 알선과 오는 9월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에 대비한 취업률 향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연택 재단이사 사퇴하라"

### 50여 동문 재단이사회 방문 피켓 시위



이연택 재단이사회 참석 반대 및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50여 동문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제282회 재단이사회가 열리는 모교 로터스홀 앞에서 벌어졌다.

이연택 이사는 총동창회칙 제32조, 33조, 34에 의거, 동창회 대표로 모교재단 임원에 파송되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날 동문들이 물리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동문들은 "동창회장 끝! 법인이사 끝!" "이연택은 동문분

열 책임져라" "동창회 망친자가 법인이사 웬말!" 등의 피켓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이연택 이사를 향해 "이연택은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영길(응용생물64) 동문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동문상 호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했던 이연택 전 회장의 시대착오적 발상과 그 동조자들의 무분별한 처신과 행동으로 많은 동문들이 분노와 실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 발언대

## 동국인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송영인 부회장

지난해 연말 어느 대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세인의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 총동창회에 이같은 인사가 본의아니게 오가고 있다. 이는 총동창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대한 동문들의 걱정스런 반응들 때문이다. 동문들 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진짜냐?”에서부터 “동국이 망가지고 있다”고 한탄하는 소리까지 들린다.

동국대는 여타 대학 중 ‘잘 나가는 동창회’로 알려지다 보니 그들 까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런데 功도 있겠지만 정치인 회장이 맡았던 지난 세월은 반듯한 동창회관 하나 만들지 못한 미완의 시대였던 것만은 분명한 듯싶다.

그래서 2007년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이 회장 후보자에 대한 발전기금 의무 부과였다. 이름만 내건 회장이 아니라 동창회 운영을 위해서 ‘무임승차’를 끌내라는 뜻이었다.

이는 제24대 전순표 회장 때부터 시행되었고 이 제도는 다른 대학 동창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26대 이연택 전임회장에 이르러 이 의무제가 2회 시행을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연택 직전 회장이 ‘연임이나 추대’로 회장을 선임할 때는 발전기금 납부 의무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5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동창회는 25만 동문들이 주인이다. 이연택 전임회장 측근들은 동국

을 사랑하는 1,200명의 형제가 모여 치른 합법적인 총회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는 문안을 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 낫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용역까지 동원한 150여명으로 총회란 이름을 걸어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차제에 후임 회장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동국호’를 좌초시키려한 전임 이연택 회장은 동국인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 여기에 편승, 합법적인 동창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소송에만 매달리는 박종윤 동문의 본심은 무엇인가? 사실인지 몰라도 박동문은 회장 추대 초기부터 수석부회장인 송석환 동문을 회장으로 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돌연 수차례 태도를 바꾼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의무와 책임은 외면한 채 명예만 행세하려는 회장은 의미가 없다.

박종윤 동문은 대전에 기거하면서 동창회 활동은 고사하고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다. 송석환 총동창회장을 상대로 “직무방해금지 거쳐분 신청”을 한 소송이 서울 중앙지법에 계류 중에 있다하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민망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자해지다.

오늘의 동창회 사태를 가져온 전임 이연택 회장은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앞장서서 동창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2012년부터 맡고 있는 모교 재단이 사직도 넘겨야 한다.

우리 동창회칙 제2조(목적)에는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이 우선이다. 반복과 질서는 금물이다. 오늘의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예전의 아름다운 동창회, 미래가 기대되는 동창회, 상호 신뢰를 주는 동창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송영인

(통계63, 65년 총학생회장)

## 동악로

## 108기념관에 동창회관을 만들자



김종찬 상임부회장

신촌 하면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연상하고, 안암골 하면 고려대를 떠올린다. 근래에는 젊은이의 거리로 상징되는 홍대앞이 있다. 동국대는 서울의 한 복판 중구, 그 중에서도 남산 아래라는 여러 가지 좋은 지리적 조건과 상징요소가 많다.

그런데도 이같은 입지조건을 브랜드화하고 이미지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메인게이트라는 정문 개념이 없고, 또 메인게이

트라고 할 수 있는 혜화문이 민망할 정도로 주변이 산만하고 일반 주택들이 캠퍼스까지 파고드는 인상을 줘 좋은 지리적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70년대 이전엔 학교 정문이 북쪽인 제일병원 쪽에 있었다. 70년대 말부터 동문인 혜화문과 남문인 정문으로 출입경로가 확대되었다. 서쪽은 남산 때문에 차단돼 있고, 동·남·북문 3개의 게이트로 출입로가 분산돼 있다. 남문은 차량 전용도로나 다름없어 정문으로 내세우기엔 지명도도 낮고, 보행자도 거의 없다. 이처럼 3개의 게이트로 분산돼있으니 어디가 정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그래서 찾는 이는 매번 어리둥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접근성·통일성·집합성·호환성·상징성이 있는 문이 좋은 문이

다. 그것을 정문 개념으로 도입해 집중 개발해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이중 혜화문이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혜화문과 그 주변을 집중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일대에 108주년기념관과 총동창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라면 주변 땅과 부동산을 더 매입해 인상적인 상징건물들을 집중 배치해 학교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려대·서강대·숙명여대 등 유수 대학들이 인근 땅을 대거 매입해 교지와 교세를 확장해 왔다. 모교도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접근성과 선전효과가 높은 앰배서더호텔 인근 혜화문쪽에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국부동산시장의 구조상 가장 비싸게 산 때가 결국 가장 싸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도 안늦다.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학교 쪽으로 올려다보이는 곳에 동국대학교의 위상이 강조되는 건물군이 들어서면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간선도로변 언덕에 동대의 상징이 서게 될 것이고 이미지와 인지도, 홍보 및 선전효과가 클 것이다.

대학본부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 수익성있는 부속병원과 사찰, 예식장도 세울 수 있다. 자동차 진입로 따로, 인도 따로의 분산된 문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면 교지의 효율적인 활용 뿐 아니라 출입자의 불편도 덜어줄 것이다.

동국대 하면 3호선 동대 입구역과 정문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동국타운으로 특화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발전의 동력으로 삼기를 동문들은 바라고 있다. 따라서 108주년기념관 건립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같이 동국발전과 번영의 멋진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찬

(교육82, KTX시네마 대표)

# 화학과동창회 모교에 1억원 70, 80학번 중심 동문 정성 모아



화학과동문회(회장=유국현, 79/83, 동국대 교수)가 학과 창립 60주년을 맞아 학과발전기금 1억원을 조성, 지난 5월30일 김희옥 총장에게 전달했다.

학과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유국현 동문회장, 공영대(78학번, 모교 학사 지원본부장), 김정엽(81학번, NCT대표), 유기봉(79학번, 동우산업 대표), 정태화(대학원 84학번, 위드케임 대표)이

사) 동문 등이 참석했다.

유 회장은 “학과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학생, 교수, 동문 모두의 결집된 노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명품 화학과로 거듭나자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를 위해 학과의 선배격인 7080학번 동문들을 중심으로 학과발전기금 1억원 모금을 결의하고 조금씩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 조계사·정각원 법요식 송석환 회장 참석

부처님오신날 2558주년을 맞아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하는 조계사 법요식과 모교 정각원 법요식에 참석,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다.

조계종 법요식에 초청받은 송 총동창회장은 식전에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법요식에서는 동창회 대표로 분향했다.

송 총동창회장은 또 모교 정각원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 안에서 불교와 동국대, 동국대와 동창회는 깊은 인연의 씨줄과 날줄”이라면서 “모교가 일치월장발전하여 명문사학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한다고 축사했다.

법요식에는 송 총동창회장을 비롯 김오현 상임부회장, 정환민 사무총장 등이 동참했다.



**청동석가여래입상  
개체보존불사 고불식**

4월24일 모교에서 있은 팔정도 청동석가 여래입상 개체보존불사 고불식에 김희옥 총장과 모교 간부, 송석환 총동창회장을 비롯 본회 임원 20여명이 동참했다.

## 법학과동창회 장학금 지급

2010년부터 … 10명에게 100만원씩

법학과동창회가 지난 4월24일(목) 오전 모교 법과대학장실에서 법학과 소속 재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후배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용길 법학과 동창회장, 김상겸 법과대학장과 장학생 10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법학과동창회는 재학생 후배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2010년부터 후배사랑 장학금을 모아 2010년 6

명(600만원), 2011년 7명(700만원), 2012년 7명(700만원), 2013년 8명(800만원) 등 지금까지 28명의 학생들에게 총 2,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명단= △고봉현(법4) △문선경(법4) △선형선(법4) △이은령(법4) △조은주(법4) △김명화(법3) △맹경식(법3) △이건희(법3) △이승준(법3) △조문경(법3)

## 뉴욕동문회 신임회장단 출범 정기골프대회 이어 총회 개최



▲ 뉴욕동문 정기골프대회가 총회에 앞서 열렸다.

뉴욕동문회 정기총회가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8일 뉴저지 클로스터 길목식당 연회장에서 열려 새 회장에 조병래(72전기) 동문을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회원들은 하보우스트로 컨트리클럽에서 ‘뉴욕동문 정기골프대회’를 갖고 친선을 도모했다.

조 회장은 신임 인사에서 “연말 총년회와 경조사 지원 등을 통해 뉴욕동문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장=조병래

△부회장=신창균 강신상 백주흠

△이사장=배시영

△부이사장=정해숙 김상목 박문성

30주년 기념 흡커밍데이’ 행사는 일환으로 기획한 ‘84-14 동행’ 기부전 시회가 지난 4월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스페이스선+에서 열렸다.

이날 오픈행事에는 오수환(84법학, 변호사)동문을 비롯한 84학번, 총동창회 전영화 수석부회장, 출품 작가 등 동문 1백여명이 참석했다.

##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공인회계사동우회(회장 이홍섭, 회계80/8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정기총회가 6월25일 최대식(회계79/85, K&C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모교 재단감사) 동문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원효관 7층 아리수식당에서 열렸다.

## 총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80여명 소통과 단결력 과시

지난 3월25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때 활동한 자원봉사 동문 초청 간담회가 4월30일 정오 서울 인사동 소재 아리랑가든에서 열렸다.

80여명의 자원봉사 동문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지난 총회 때 우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총동창회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부탁했다.

이날 오혜경(국제정보대학원 98, (주)오헤븐 대표)동문은 “동문들의 솔선수범 봉사와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오찬경비를 자청해 계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감정평가사 6명 합격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시험에 서승오(법학과 4학년), 김원갑(식품공학 93졸), 배윤우(경영 04졸), 신동준(경영정보 14졸), 최희석(전기공학 09졸), 하동수(국제통상 06졸) 동문 등 총 6명이 합격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감정평가사는 국가고시에 봐금가는 어려운 관문으로 정평이나 있다.

## ’84 미술학부 전시회

84학번 미술학부 동문들이 ‘입학

# 회비 납부 안내

동문 여러분의 관심은 곧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 동문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창회보의 발행과 발송사업
- 동창회 조직활성화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과 회원 경조사 등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동문님의 정성을 보내주십시오**

**일반회원 년 회비 : 3만원**

**임원 분담금**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납부방법**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74659 (예금주 : 송석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후배사랑 장학기금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각종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02-733-0303, 03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포인트카드 등록하면 혜택이 팍팍!!!**

## 이젠 동국노블리스카드입니다



I'm your energy! GS동국노블리스 포인트카드를 등록하시면

1리터당 10원의 현장 할인과 재학생 장학금 15원씩이 적립됩니다.

또 등록하였을 때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GS칼텍스 상품권도 드립니다.

고유가시대 유류대 할인 받으시고, 장학금 기부 하시고, 상품권도 받으세요~

**GS주유소에서 즉석 할인받고 후배장학금까지 적립됩니다**

### ▶ 카드사용 혜택

- 개인별 현장 할인금액 : 1리터당 10원
- 후배 장학금 적립금액 : 1리터당 15원

### ▶ 카드사용 안내

- GS칼텍스 주유소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 할인혜택도 받고 '동국노블리스 포인트카드'는 별도로 추가할인 됩니다.

### ▶ 연락처

- 불편사항 연락처 : GS칼텍스 고객상담실 1544-5151
- 카드발급 신청처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02-733-0303

### ▶ GS 동국노블리스 카드 등록방법

1	원하는 서비스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보너스카드 등록은 1번 누른다
2	보너스카드 등록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핸드폰 번호를 누르신후 #버튼 을 눌러주십시오	핸드폰번호와 #버튼을 누른다
3	고객님의 생년월일 8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생년월일 숫자를 누른다 (예: 1965년8월15일 생일 경우 19650815)
4	미등록고객입니다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남성은 숫자버튼 1번, 여성은 숫자버튼 2번을 누른다
5	입력하신 통신사가 SKT이면 1번, KT이면 2번, LGT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통신사가 SKT면 1번, KT면 2번, LGT면 3번을 누른다
6	입력하신 핸드폰이 본인 명의면 1번, 타인명의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본인명의 핸드폰은 1번, 타인명의 핸드폰은 2번을 누른다
7	맞으면 1번, 건너뛰려면 2번 눌러주십시오	맞으면 1번, 건너뛰려면 2번 누른다
8	본인 확인을 위해 SMS 인증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인증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오면 문자에 있는 인증번호를 기록해둔다 (스마트폰일 경우 : 전화도중 인증번호를 찾으려면 스마트폰 밑에 있는 가운데 버 튼을 눌러 첫페이지로 간다음 문자아이콘 을 눌러 수신된 문자를 확인한다 최근 문자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첫 화면 아래의 통화아이콘을 누른다)
9	인증번호입력은 1번, 인증번호를 다시받 기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인증번호를 기록했다면 1번을 누르고, 기록하지 못했다면 2번을 눌러서 다시 문자 로 인증번호를 받는다
10	소지하고 계신 보너스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해 주십시오	보너스카드 앞면의 숫자 16자리를 모두 누른다
11	카드 서명란에 있는 CVS번호 3자리를 입력해주십시오	보너스카드 뒷면 서명란 끝에 있는 숫자 3자리를 누른다
12	GS에너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면 1번 버튼을 누른다
13	고객님 성함을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을 말한다
14	고객님의 성함은 00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맞으면 1번 버튼을 누른다
15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어 누른다
16	비밀번호 4자리를 재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다시 누른다

## 부산동창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박진호 동문 선출



박진호 회장

부산동창회(회장=정광훈, 상학65) 정기총회가 지난 5월 30일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범일동 뉴축복웨

딩홀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박진호(경영65, 동부산대 명예교수)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김창식(국문63, 시인) △손온수(상학65) 동문이 선출됐으며, 부회장 선임은 신임회장이 추후 임명하도록 일임했다. 또 흥보실장에는 윤석진(경영85, 부산경상대 교수) 동문을 위촉하고, 최영식(국문81, 부산시 교육청 감사자문위원) 현 사무국장은 유임키로 했다.

이날 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동창회,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尽力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모교방문단을 구성, 가을 중에 모교 투어와 함께 학교발전상을 청취하는 것을 비롯 △총장배 영남지역골프대회 주관 △서정주, 조정래 등 모교 석학들을 만나는 문학기행 △영남지역 동문주지 사찰 참배 △총동창회 골프대회 참여 △동국인 체육대회 참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지역에 있는 소규모 각종 모임과 활발한 교류를 갖고 국내 제2도시에 걸맞은 동창회로 발전하도록 활동 외연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는 △70학번 중심의 동국회 △4,50대 중심의 동산회 △동국골프회 △동국한의사회 △동국경우회 △동국산악회 △교직동우회 등의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농협동우회 모교서 모임 “건학 108주년 자부심 느껴”



농협동우회(회장=이광석, 회계79, 지주리스크 관리부장)가 2014년도 상반기 모임을 건학108주년을 맞아 지난 6월 9일 저녁 7시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박두영(경영83) 전남고흥 거금도 농협조합장, 이정모 부행장(경영83, 기업고객본부장), 윤동기 부행장(회계80, 충남영업본부장), 김영석 경동심사센터장(법학77), 정창윤 공판지원부장(사회85), 성낙문 신용보증추진국장(정보관리95), 임귀수 광화문청사출장소장(농생물84)을 비롯 최근 입행한 동문까지 회원 70여명과 퇴직선배인 박철현(경제69, 전 상무), 박광호(전산75), 최영조(경제74)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직 회원 수가 235명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년 3회 모임과 애경사 동참 등으로 끈끈하고 단단한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 전영화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농협동우회는 총동창회 산하 단위동문회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날 부회장으로는 김상래(농학79) 종로지점장, 박태선(농학82) 남영동지점장동문이 새로 추대되었으며, 2014년 퇴직한 김성연(법학77), 강광일(경제83) 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위로했다.

## 동우탑서 4.19 기념식



4.19 54주년기념 추모식이 4.19혁명동지회(회장=라동영) 주관으로 4월 18일 모교 동우탑 앞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4.19동지회 라 회장을 비롯 박대혁 수석부회장, 이채옥 사무총장과 4.19유공자회 김정걸 회장 등 회원 40여명과 총동창회 전영화 수석부회장, 이재형·강신승·김

오현 상임부회장, 정환민 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 박정극 학술부총장과 정각원장 법타스님 등 모교 간부 다수가 자리 함께 하였으며 현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동우탑은 4.19혁명 당시 산화한 고 노희두(당시 법학과 3년) 동문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인 1961년 4월 7일 세워졌다.

## 김중배 동문 이천 국립묘지 안장

1964년 6.3사태 당시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나섰던 희생된 고 김중배(농학63) 민주열사 묘소가 충주 선영에서 이천 국립묘지로 이전, 안장됐다.

이날 안장식에는 6.3동지회 박동인 회장을 비롯 김삼철 부회장, 권오갑 동문 등 회원들과 총동창회 송석환 회장, 서영준 부회장, 모교 박정극 부총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송석환 회장이 묘소에 복토하고 있다.

## “총동창회 라이온스로 확대”

동행라이온스 회장에 홍종표 동문



홍종표 회장

동행라이온스(회장=김병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A지구) 신임회장에 홍종표(행원94, 총동창회 상임부회장)동문이 지난 6월 26일 취임했다.

동행라이온스는 이날 정기총회를 갖고 제1부회장인 홍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 임원 선임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라이온스 슬로건인 ‘우리는 봉사한다’는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을 강화

하고, 동행라이온스를 동국대 총동창회 라이온스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16일 월례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 추천되었으며, 6월 19일 조남풍 고문 등이 참석한 고문단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동행라이온스는 1996년 3월 8일 창립되어 매월 3번째 목요일마다 월례회의를 열고 있으며, 회원수는 60여명이다.

△회장=홍종표  
△제1부회장=박태선 △제2부회장=(공석) △제3부회장=유칠식  
△총무=송인모 △재무=선우혜경 △감사=김강균(변호사)

매경 이코노미 선정 '100대 CEO'

동부화재보험(주) 사장 김 정 남 동문 (행정72)

# 손해보험업계 최초 월드지수 편입

## 보상과 영업·기획 등 핵심업무 거친 최초의 내부 출신



1952년생/ 행정학과/ 동부화재 경영기획담당 상무/ 동부화재 경영지원총괄 상무/ 동부화재 신사업부문 총괄부사장/ 동부화재 개인사업부문 총괄부사장/ 동부화재 사장(현)

금융사의 해외 진출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정부도 제조업체들처럼 금융업체도 해외로 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성공스토리가 거의 없는 풍토가 돼버렸다. 그런데 성공스토리를 일궈낸 동문이 있다.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이 주인공이다. 김사장은 모교 행정학과 72학번이다.

동부화재는 김 동문이 CEO로 취임하면서 미국 팜, 하와이 등지에서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올려놓고 미국 본토까지 공략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정남 동문은 1979년 동부그룹에 입사했다. 1984년 동부고속에서 동부화재로 옮긴 후 동부화재에서 한 우물을 팠다. 2010년 동부화재 사장에 오르며 동부그룹의 대표적인 '샐러리맨 신화'가 됐다. 보상과 영업, 신사업, 기획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데다 동부화재 최초의 내부 출신 CEO다.

김 동문은 "CEO까지 오른 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을 거꾸로 쓰면 공이 된다. 운도 공을 들여야 들어온다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학 시절 학업에 크게 뜻이 없어 학계 진출을 고려하는 대신 사업가로서 야망을 키웠다고 한다. 그의 신조는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앞서자. 1등을 해보자"로 바뀌었다.

CEO가 되면서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실상추구, 상호소통, 자율경영'.

"거품은 걷어치우고 사건,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게 실상추구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경우에도 감추려 하지 않고 더 솔직하게 평가하고 평가받다 보면 개선되더군요. 조직이 크다 보면 칸막이 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매달 상하 막론하고 직원들과 어울리다 보니 지금까지 상호 소통한 직원 수만 취임 후 1600명이 넘었습니다. 자율경영 역시 조직이 커진 만큼 간접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 믿고 맡기다 보니 오히려 성과가 나는 듯합니다."

말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며 손해보험업계가 울상일 때에도 동부화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6%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9월에는 다우존스가 평가한 '2013 다우존스 대한민국 지속가능 평가'에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해외 사업과 함께 김 사장이 올해 경영에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시장 개척이다. 단 무작정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종전 우량고객이 또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업셀링(Up-selling)' 용 특화 상품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병보험처럼 고령화 시대에 유망한 상품들은 차별화된 신상품을 개발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영업이익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매 출 액	9조694	9조6925	7조6427	
영업이익	5068	5690	3841	

매경 이코노미 선정 '100대 CEO'

(주)블랙야크 회장 강태선 동문 (경영전문대학원07)

# 등산용품 3대 브랜드 일궈낸 승부사

아웃도어 시장 선도 … 영국 등 17개 국가 수출로 총매출 6,700억원



동국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3년 동진 설립/ 1995년 블랙야크 론칭/ 2003년 베이징 블랙야크 법인 설립/ 2010년 오은선 안나푸르나 원정대 대장/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블랙야크 회장(현)

매출액 · 영업이익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매 출 액	3027	4535	6700(추정치)
영업이익	599	1013	미집계

2020년 글로벌 NO.1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CEO다. 경영전문대학원(MBA) 출신인 강 동문은 아웃도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1973년 서울 종로5가에 '동진사'라는 등산용품 가게를 열었다. 매장 일부를 공장으로 쓰며 '자이언트'라는 브랜드로 배낭도 만들고 텐트·등산화를 들여와 팔았지만, 매출은 신통찮았다. 거들떠보는 이 별로 없던 이 두 평짜리 가게가 지금 연매출 6,700억원(2013년 기준)의 아웃도어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랙야크는 노스페이스,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3위권. 그러나 노스페이스가 7100억 원대, 코오롱스포츠가 6800억원대, 블랙야크가 6700억원대로 차이가 크지 않다.

블랙야크의 성공 비결은 복잡하지 않다. 강 회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장에서, 없는 제품을, 없는 소비자에게 팔았던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 업계 트렌드를 주도한 그의 행보를 보면 이런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블랙야크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 나서 2005년에는 아웃도어업계 최초로 자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도 매년 연매출의 7~8%를 투자한다. 그 덕에 바느질 없이 소재와 소재를 잇는 무봉제 접합 기술 '웰딩(welding)'으로는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날씨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 예측 모델도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아웃도어 특성상 기상 정보는 재고 방지와 수요 예측 등에 있어 중요한 자료지만 실제 경영과 접목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세계 아웃도어 시장 공략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블랙야크는 2012년부터 한국 아웃도어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독일 '이스포(ISPO)'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웃도어 명품관 격인 '비전 홀'에도 입성했다. 독일 이스포는 매년 100여개 국가에서 2000여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아웃도어 박람회다. 강 회장은 "단색 위주의 유럽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블랙야크만의 디자인과 진보적인 기술력으로 현지인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위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체코 등 17개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블랙야크 2.0 프로젝트'로 브랜드 제2의 도약기를 연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블랙야크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재탄생시켜 2020년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게 강 회장 목표. 강 회장은 "블랙야크 신제품은 세계 최고의 등산 전문가가 먼저 착용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는 프리미엄급 아웃도어가 될 것"이라며 "미국·유럽권 아웃도어 시장을 제패하는 비밀병기가 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올해는 아웃도어 1위를 차지하겠다. 블랙야크, 마모트, 카리모어, 마운티아 등 4개 브랜드로 매출 1조원 클럽에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장 취임**

양종수(87/94행원)  
동문이 지난 4월 육  
군사관학교 교장으  
로 취임했다.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2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공군참모총장 부임**

최차규(96/10행원)  
동문이 대장으로 승  
진하며 신임 공군참  
모총장에 취임했다.

공군참모차장, 공  
군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 3선**

구재태(63/67경행)  
동문이 5월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제38차 전국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재선  
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  
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지냈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용선(73/77경행)  
동문이 5월9일 도로  
교통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경찰청 경비국장과  
제주 · 강원 ·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  
임했다.

**불교센터 건립 발원 고희법회**

김선근(65/69인철,  
동국대 명예교수)동  
문은 6월14일 모교  
정각원에서 동국대  
불교센터건립기금모  
금을 위한 고희법회를 열고 '인도철  
학에서 본 대승불교-성철스님 간화  
선 사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법  
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초대회장**

노진명(73/80토목,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동문이 5  
월23일 한국건설기  
술관리협회 초대 회  
장에 취임했다. 지난 4월27일 한국건  
설감리협회 2014년 정기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  
협회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명  
칭이 통합되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

정기섭(73/86정외,  
(주)에스엔지 대표이  
사) 동문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  
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서 열린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정기  
총회에서 제6대 협회장에 추대됐다.

**대원미디어 사업부문 대표이사**

최영일(75/79무역)  
동문이 대원미디어  
사업부문 신임 대표  
로 취임했다.

월트 디즈니 컴퍼  
니 코리아와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사  
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오로라월  
드에서 국내 순수 창작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스타 라이센싱 사업을 진행했다.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77/81공경)  
동문이 지난 4월3일  
감사원 인사에서 지  
방건설감사단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을 역임했  
다.

**우리아비바생명 감사위원**

최효순(79/82회계)  
동문이 우리아비바생  
명 상근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예금보험공사 인사  
지원부장, 저축은행 정상화부장 등을  
역임했다.

**CU미디어 대표이사**

신무용(80/87영문)  
동문이 지난 4월30일  
열린 CU미디어 이사  
회에서 신임 대표이  
사로 선출됐다.

BBDO KOREA 부사장을 거쳐  
JCDecaux Korea 영업본부장을 역임  
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수일(81/88전산)  
동문이 지난 4월16일  
금융감독원 기획 · 경  
영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보험 분야 전문가로 기획조정국장  
과 총무국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국회  
대응 및 금감원 내부 살림을 이끌어  
왔다.

**'만해 한용운 우표' 발행 산파역****우표 발행 심의위원 송일호 동문**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추억의  
인물 우표시리즈 '민족시인' 편에  
모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  
생 만해 한용운 선사가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근 · 현대 유명  
인물을 분야별로 선정해 '영원우  
표'를 발행하고 있다. '민족시인'  
편 우표시리즈에는 만해 한용운  
과, 이육사, 윤동주 선생의 모습과  
이들의 시 구절이 담겨있다.

만해 한용운 우표의 발행에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교 송일호  
(79/82경제, 모교 사회과학대학  
장) 동문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만해스님 우표가 건학108주년  
에 발행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

다. 송 동문은 "지난해 '민족시인  
우표' 발행을 제안해 올해 초 우  
표발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었으나 심의 대상에 만해스님이  
명단에 빠져있었다."면서 "만해  
스님은 승려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사에서 큰 획을 그은 시인이  
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  
가인에도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심의위원들을 설  
득해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만해 한용운 우표에는 만해 한  
용운 선생의 사진과 함께 "아아  
님은 갚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시 '님의침  
묵'의 한 구절이 담겨있다. 우정  
사업본부는 138만 6천장의 민족  
시인 우표를 발행했다.

송 동문은 47년전 한국 우정역  
사를 개척한 故석산 정기홍 선생  
과 인연을 맺으며 우표를 수집하  
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리하여 만  
든 대지가 5천장이 넘고 그 속에  
붙은 우표가 10만장이 넘는다.

**인천 금융정책자문관**

김수현(84/90회계)  
동문이 지난 4월1일  
인천광역시 금융정  
책자문관에 위촉됐  
다.

1988년 신용관리기금(1999년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에 입사해 은행감독  
국을 거쳐 여전감독실 팀장, 소비자서  
비스국 팀장 등을 역임했다.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수상**

다수의 개인전(7회)  
과 단체전을 통해 활  
발하게 활동해온 이  
완(97/04미술, 조각  
가)동문이 한남동 삼  
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을 맞아  
신설한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첫  
수상했다.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02/05교원)  
동문이 세종시교육  
청 정책기획관으로  
전보됐다.

교육부 평생학습정  
책과장 등을 지냈다.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무문스님(불원03, 서  
울보광사 주지)이 5  
월23일 '제15회 대한  
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종교부문  
한국인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사비를 털어 청소년 장학금  
과 독거노인 후원과 환우 방문봉사,  
군법당 법회 등을 지원해 왔다.

# 세월호와 함께 떠난 故 최혜정 동문

## 추모비 제막 - 장학기금 조성 등 추진



▲ “걱정하지마 너희들부터 모두 구출하고 선생님이 맨 나중에 나갈게” – 최혜정 동문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노란리본들이 모교 교정에 걸렸다.

의인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은 5천만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모교 사대 역사교육학과 2009학번 최혜정 동문. 그는 안산 단원고 2학년 담임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의 인솔교사였다.

최동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걱정하지

마. 너희들부터 모두 구출하고 선생님이 맨나중 나갈게” 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비상통로며 구명조끼를 챙겨주었다.

생존 학생들에 따르면 최동문의 지시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갑판으로 뛰어올라 목숨을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동문은 한점 흐트러짐 없이 학생들에게 안전처를 제공하

다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했다. 이렇게 최동문은 24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최동문은 생사가 엉갈리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제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소식이 각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17일 모교는 사법대 학림관로비에 최동문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에는 매일 1천여명의 학생과 동문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최혜정 동문은 2009년 모교 사법대 역사교육과에 입학, 2013년 사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언제나 불교정신의 이타행을 몸소 실천해 왔다.

지난해 고시보다 어렵다는 임용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안산 단원고에 첫 부임을 했으며, 부임 이후 학생들에게 인성과 적성, 그리고 실력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

을 실시해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 받는 인기교사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동문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총동창회는 모교와 협의해 교정에 기념흉상을 세울 예정이다.

최동문을 기리기 위해 사대 역사교육과 동문회와 82학번 동창회(회장 김종찬)가 공동으로 지난 5월9일 모교 구내 카페 다르구스토에서 추모기금 마련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석환 총동창회장, 김희옥 총장을 비롯 국회의원 김태원, 홍영표, 박원석 의원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탤런트 권영희, KBS 아나운서 한상권 동문과 200여 교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모비 건립과 장학금 제정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됐다.

6월12일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제27대 총동창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최혜정 동문 추모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모교와 협의해 추모비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주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총동창회 사무처에 일임했다.

〈김종필, 행정82〉

## 송요인 교수 25주기 추모식

### 제자 조의연 교수 등이 장학금 마련



▲ 故 송요인 교수 25주기 추모식이 6월21일 모교 로터스홀에서 엄수되었다.

모교 영어통번역학과(학과장 조의연 교수)가 주관한 故 송요인 영문과 교수 25주기 추모식이 6월2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한국번역학회 초대회장 김용권 서강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번역학회 회장 김정우 교수 등 학계와 교육계 인사들과 제자,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번역학 연구의 효시를 이룬 송요인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제자 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모식에서는 번역학과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담은 ‘번역 문체론(조의연 역음)’과 ‘통사이론의 분화와 통합(박명관 역음)’의 현정식과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송요인 교수 추모기금’을 조성한 조의연 교수는 “사제동행의 정신이야 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가치로 보고 스승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고 송요인 교수는 충남 청양에서 출생, 1960년 모교 영어영문학과를 졸

업하고 1975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그의 저서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1975년, 동국대출판부)’와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1984, 한신문화사)는 현대 한국 번역학 연구의 최초의 학문적 연구

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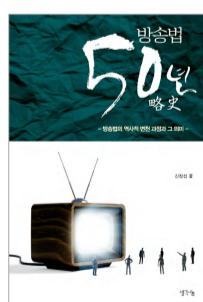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과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그리고 The Korea Times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1989년 7월22일 57세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 신간안내

#### 방송법 50년 略史

- 방송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의미 -

신창섭 동문 지음



신창섭(75/79

경영,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동문이 우리나라 방송법 제정 50주년에 발맞춰 방송법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방송법 50년 약사’(부제-방송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의미)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우리나라 방송은 일제 강점기 경성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세계적인 방송법은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1964년 1월1일 처음 시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과 묶어 시대별 방송체제의 특징과 성격을 중심으로 방송법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고 있다.

이 책은 방송의 역사와 부침을 같이 해온 방송(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시대별, 요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연구자료로도 활용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신창섭 동문은 1985년 KBS공채 11기로 입사해 홍보실 차장, KBS 아트비전 상임이사, 경영본부 총무국장, 청주방송총국장 등을 역임했다.

[도서출판 생각나눔 간행, 536면, 2만 2천원]

2014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 박대혁 동문

## “가족 모임은 바로 작은 동창회”



▲ 박대혁 동문은 17명이 동국가족이다.

“동국대는 나의 분신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가나 응원가가 나올때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지난 5월7일 모교 개교 108주년 기념식에서 제7회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을 수상한 박대혁(59/63생 둘) 동문은 지금도 ‘동국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단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박 동문은 대대

로 불교집안이다.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신도였기에 위로 형님 두 분을 비롯 본인, 아래로 동생 두 분까지 5 형제가 모두 동국대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5형제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처남과 조카들까지 진학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동국대’가 항상 우선 순위였으며 당사자들도 별로 이의가 없이 선택했다.

동국패밀리는 박대혁 동문을 중심으로 △큰형 박대석(56/61화학, 작고) △작은형 박기석(58/법학, 작고) △동생 박대현(59/64시학) △동생 박대엽(65/농경) △딸 박은경(85/89역교) △아들 박태섭(94/96 경영, 태권도 관장) △사위 김승욱(85/91역교, 국민은행 차장) △처남 유재심(54/58물리, 전 동국대 교육방송국 간사) △처남 유재후(65/영문, 재미) △누나 아들 김영선(73/79 농생, 경희여중 교감) △누나 아들 이승민(08대학원 일문) △둘째 고모 아들 한창섭(56/63화학) △막내고모 아들 장정근(71/78경제) 동문과 산원 출신 딸, 누나 딸, 사촌동생 부인까지 합하면 무려 17명에 이른다.

“가족 모임이 곧 작은 동창회가 되고 있다”는 박 동문은 “가족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제사나 명절때 함께 모였다 하면 모교 야구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전해준다. 박 동문의 가훈은 ‘정언(正言)’이다. 불교의

팔정도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바른 말’이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기 때문이란다.

“나에게 동국대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동국대는 나로 하여금 불교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동국대는 나의 분신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가나 응원가가 나올때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준 인생의 나침반이었다”고 즉답한다. 서가에 불교서적이 대부분이라는 박 동문은 “지금도 시간을 내어 불서를 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동문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말도 남겼다. 하나는 “남들 앞에서 동국대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젊었을때 불교서적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 모교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의 모교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호, 통계85〉

우리는 4대가 동국가족입니다 – 이재창 동문

## “동국은 우리가족의 영원한 고향”



▲ 전 불교대학원장 이재창 동문 가족.

모교가 올해로 개교 108주년을 맞았다. 여기, 모교와 인연을 맺어 입학하고 동국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4대 동국가족’이 있어 참으로 경이롭고 자랑스럽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동국학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한국불교 조계종 재건의 주역이면서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에는 정

치가로 활동하면서 세찬 격랑의 시대를 선도했던 지암 스님(속명 이종숙, 1906년 명진학교)의 아들인 모교 명예교수 이재창(51/55경제) 동문과 그 가족이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한없이 인자하셨지만 난 언제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부산에서 학교 다니던 피난시

절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려고 입학원서를 사다 보여드리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동국대학의 이사장인데 아들인 네가 다른 대학에 가서 되겠냐 하시드라구.” 부친의 준엄한 뜻을 좋아 그는 그 길로 동국대학에 원서를 냈고 모교와 인연을 맺었다. 먼저 간 아들 이학용(77/83전자전기, 작고)동문과 장녀 현정(02/05언론정보대학원, 시민운동가)씨와 차녀 선용(87/91연극영화, 전 KBS 공채 탤런트, 상해 거주)씨가 있다. 모교에서 일문학을 전공한 4대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현재 자기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처남을 비롯해 처조카와 동서 등 처가에서도 모교를 나온 분들이 많다”고 전한다. “동문님의 권유나 독려가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터뷰 중 처음으로 소리내 웃는 이재창 동문. 참 신기하게

도 부인 원연희 여사의 가운데 이름자도 한자로 연꽃 연(蓮)을 쓴다고 하니 이 집안과 불교, 아니, 동국과의 인연은 가히 ‘운명적’인 것 같다.

“모교 재직 시, 불교대학원을 출범시키고 초대 불교대학원장을 지낸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는 이 동문은 지난 93년 정년 퇴임했다. “동국대학교하면 국내 3대 명문사학으로 꼽히던

동국학원 초대 이사장을 지난 아버님을 필두로 아들·딸과 손녀까지 ‘동국’과의 인연은 ‘운명적’인 것 같다.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불씨를 살릴 이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입니다.”동국을 사랑하고 꿈꾸는 뜨거운 그의 의지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끝으로 그는 부친을 ‘친일’로 몰아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언급, 한국불교의 중흥과 독립운동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부친의 진실이 언제가 꼭 밝혀지리란 희망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박남준, 국문71〉

깨끗한 마스크 터프한 남성상 이 정재 동문 (연영99)

## 한국영화계 톱스타로 제2의 전성시대 구가 SK텔레콤 CF · 영화 ‘관상’ 등에서 탁월한 존재감 보여줘



잘 생긴 얼굴에 뛰어난 연기력. 바로 한국 영화계의 톱스타 이정재 동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모교 연극영화과 99학번이다. 그의 매력은 깨끗한 마스크에 터프한 남성미를 지닌 데서 찾는다. 그래서 여성 팬이 많다.

이 동문은 1973년 3월 15일 서울 출생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거쳐 모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이 동문은 1993년 <참견은 노 사랑은 오 예>의 단역으로 영화계 입문. 1994년 <젊은 남자>로 대종상, 청룡상, 백상예술대상, 영평상 신인남우상 수상, 1999년 <태양은 없다>로 영평상 남우주연상 수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남우주연상 수상.

빅매치 (가제)(2013), 관상(2013), 세상의 저편(2012)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3년 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CJ CGV 스타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1995년 제3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SBS '모래시계'로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않는 헤어스타일과 외모가 눈길을 끈다.

얼마 전엔 ‘헤라 옴므’의 새 모델로 등장해 ‘열정과 신념을 가진 자기만의 에센스가 있는 남자’로 빛나는 존재감과 매력을 발산하는 TV 광고 영상이 화제다. 얼마전 방송된 헤라 옴므 에

센스 인 스킨 TV 광고에서 이 동문은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와 아우라로 제2의 전성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역시 이정재!” “완전 럭셔리 그 자체” “이정재 에센스 써보고 싶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동문은 진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로 상품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에 잘 부합한다는 평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학과 1년 후배인 전지현 동문과 함께 SK텔레콤 “잘생겼다 LTE-A 폰” CF에서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동문은 어디서든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남자로 비쳐진다. 특히 철저한 자기관리로 늘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라는 평을 받고 있다.

2014년 40대 남자배우들의 스크린 속 활약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월 개봉된 감성 느와르 ‘하이힐’의 차승원을 시작으로 ‘우는 남자’의 장동건, ‘마담 뺑덕’의 정우성, ‘빅매치’의 이정재 까지 2014년 극장가 다채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40대 남자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중 이 동문은 ‘빅매치’에서 하루 아침에 살인누명을 쓴 대한민국 최고의 격투기 스타 최익호 역을 맡아 본격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빅매치’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게임을 만든 설계자와 형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게임에 뛰어든 남자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영화 ‘도둑들’, ‘관상’을 통해 스크린 대세가 된 그의 변신에 기대를 걸게 한다.

〈편집부〉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 동문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2013년 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CJ CGV 스타상을 수상했다.

코믹 멜로연기의 여신 전 지 현 동문 (연영00)

# 끝없는 인기몰이로 영화 TV·CF업계 장악

## 중국에 한류열풍 또다시 불어넣어 … 앞으로가 더 기대돼



지난 몇 달동안 온 국민의 수, 목요일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SBS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동문들은 기억할 것이다. 풋풋하고 사랑스런 미남배우 김수현과 주연으로 나온 전지현 동문. 이 드라마가 인기 최고를 누린 것은 단연 전지현 동문의 당차고도 깊이있는 연기력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그래서 전 동문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 높기만 하다.

전 동문이 나오는 CF 광고상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 전지현이 없는 한국 상권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다.

화장품을 비롯해 가구, 냉장고, 의상, 주류, 먹거리와 최근 SK 텔레콤 CF까지 그녀는 망가지면서도 당당한 모습 그대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해 예쁜 모습이 망가져도 흥행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 동문은 모교 연극영화과 00학번이다. 본명은 왕지현. 재학 시절부터 연기력이 탄탄해 장래가 촉망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교에서 다진 연기 훈련이 지금 한국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비결이 된 것이다.

코믹 멜로 연기의 여신으로 등극한 전 동문은 '별에서 온 그

대' 종영 뒤에도 그녀가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었고, 이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뿐만이 아니다. 중국에도 '별 그대' 열풍을 몰아붙여 한류 폭풍을 또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스타들의 인기 아이템들이 온라인 정도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되어지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가 하고 나오는 아이템들이 고가 브랜드일지라도 매출로 이어지고 완판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더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사원들, 여대생들의 화장대에 전 동문이 직접 드라마 촬영 때 사용한 아이템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 동문의 스타일은 빛과 그림자가 현란하게 교차하는 원색 라인의 실루엣. 가늘고 긴 팔과 다리, 아름다운 늘씬한 체형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 움직일 때마다 탄성을 불러일으킨다.

호피의 털 장식, 깊은 광택감이 있는 와인 빛의 짙은 벽돌색 컬러, 이런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성들의 자존심을 한껏 끌어 올려준다는 평가다. 다정한 눈빛이 친근미를 더해주는 데다 서툴러도 당당한 모습이 그대로 쿨한 여자라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전 동문이 다음 어떤 동선을 만들지에 따라 인기의 격류는 또 다시 요동을 칠 것이다. 전 동문을 둔 우리 동문사회도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편집부〉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열연한 전지현 동문  
'별 그대' 열풍을 몰아붙여 한류 폭풍을 또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 JTBC '2014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김희옥 총장 '인재 경영부문' 수상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 참교육대상 '종합대상' 차지

모교가 지난 4월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이상열)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창의교육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매년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학문적 가치 창조, 교육정책의 창의성과 개혁성, 글로벌 경쟁력, 취업 및 창업성과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참교육대상은 모교를 포함해 서강대(창조융합교육부문), 서울예술대학교(예술교육부문) 등 12개 대학이 받았다.

김희옥 총장이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대학의 사회기여 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아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상(인재경영 부문)'을 수상했다.

2014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시상식은 6월17일(화) 11시 밀레니엄

## 중국 4개 대학과 교류 협정

### 경주캠퍼스, 국제화로 위상 높여

경주캠퍼스(총장=이계영)는 지난 5월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정주대학, 북방공업대학, 북경공업직업기술학원, 북경신식직업기술학원 등을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경주캠퍼스는 중국 각 대학들과 학술 및 인적 교류 등을 통해 학술 분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게 됐다.

정주대학은 2000년 설립돼 46개의 단과대학에 약 4만 9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허난성 33개 4년제 대학 중 1위에 해당하는 4년제 국공립 종합대학이다.

북방공업대학은 9개 단과대학에 약 1만 6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4년제 공학 중심 대학, 북경공업직업기술학원과 북경신식직업기술학원은 2년제와 3년제의 전문 대학이다.

## 박물관 상설전시관 재개관

### 안중근 유묵·청화백자 등 공개



▲ 박물관 전시실 내부.

박물관(관장=정우택)이 지난 5월 13일 새롭게 개편된 상설 전시실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물 전시방식의 변화로 관람객의 편의 위주로 바뀐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전까지 단순

유리 케이스 속에 전시 되어 있던 불교조각품들을 일반 박물관들처럼 조각품 전용 케이스 속에 전시하고 전시실 조명을 유물전시에 알맞게 조정했다.

또 이번 개편으로 '안중근 의사 유묵'과 '홍치 2년명 청화백자송죽문화' 등 그동안 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물들이 전시에 추가되었다.

'안중근 의사 유묵'은 2006년 건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이후 근 8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 박물관에 재공개된 유물이다.

## 아시아 96위 - 국내 18위

### 조선일보 평가 … 아시아 10 · 국내 2단계 상승

조선일보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모교는 아시아 순위 96위, 국내대학 순위 1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시아 대학순위 106위보다 10계단 상승했고, 국내대학순위는 지난해 20위보다 2계단 뛰어올랐다.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국제화 부문과 교육여건 부

문이 추가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또 고질적인 점수하락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교수 연구 부문 점수도 일부 개선되었다.

QS-조선일보 대학평가 지표는 △ 연구능력=60% △졸업생 평판도 =10% △교육여건=20% △국제화 =10%로 구성돼 있다.

## LINC사업단 '우수' 선정

### 산학협력 선도 … 3년간 120억원 지원 받아

모교 LINC사업단(단장=이의수)이 5월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계평가에서 '우수' 대학에 선정되어 3년간 120억원을 지원받는다.

모교는 지난 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최종평가 '우수'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도심형, 융합형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LINC사업단은 인문학과 공학, 기업 가정신을 아우르는 신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을 선보였다고 평가를 받았다.

LINC사업단은 지역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충무로 Culture Valley 조성'을 장기적인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15개의 산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시와 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과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 4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뽑혀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중 최다 25억원

모교는 중소기업청 주관 '2014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작년 한 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인정받고 2014년에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모교는 2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25억

원은 일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창업선도대학에는 모교를 포함해 건국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21개 대학이 선정됐다.

### 과학의 날 대통령 표창



노용영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한 제4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한국금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강삼모 경제학과 교수가 6월13일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가 선정한 '2014 금융연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선정



정승석 불교학부 교수가 5월15일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2014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 우호(于湖) 인문학상 받아



황훈성 영문과 교수 가 5월25일 故 우호 신현학 국무총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2014년 '우호(于湖)인문학상'을 받았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 각종회비 납부안내

국민은행 006001-04-274659

(예금주 : 송석환 동국대총동창회장)

〈2014년 3월 25일 ~ 2014년 6월 30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순

#### 고문 분담금

#### 감사 회비

#### 부회장 회비



원용선 (59영문)  
고문 100만원



오수환 (84법학)  
감사 100만원



이제곤 (64경제)  
감사 100만원



이홍섭 (80회계)  
부회장 100만원



권영남 (64경행)  
부회장 100만원



김경재 (65농학)  
부회장 100만원



김세훈 (72전산)  
부회장 100만원



김동성 (73경의)  
부회장 100만원



김오현 (76체교)  
부회장 100만원



김재웅 (65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진억 (73경영)  
부회장 100만원



박영순 (92삼원)  
부회장 100만원



박태권 (71정외)  
부회장 100만원



박희창 (66경영)  
부회장 100만원



배시영 (58경제)  
부회장 100만원



법운스님 (05불원)  
부회장 100만원



법타스님 (67인철)  
부회장 100만원



손학중 (65농경)  
부회장 100만원



서승훈 (73정외)  
부회장 100만원



서영준 (64법학)  
부회장 100만원



성웅스님 (91불원)  
부회장 100만원



심응석 (72경영)  
부회장 100만원



오정석 (72동학)  
부회장 100만원



오창환 (63경영)  
부회장 100만원



오혜경 (98국원)  
부회장 100만원



유병완 (64상학)  
부회장 100만원



이계홍 (65국문)  
부회장 100만원



이병국 (07인철)  
부회장 100만원



이상민 (68행원)  
부회장 100만원



이시우 (91행원)  
부회장 100만원



이재형 (64불교)  
부회장 100만원



임규영 (68경제)  
부회장 100만원



전영화 (65경영)  
부회장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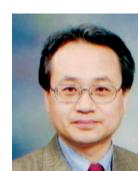
정산스님 (88선학)  
부회장 100만원



정상철 (70경제)  
부회장 100만원



정환민 (65농학)  
부회장 100만원



조의연 (77영문)  
부회장 100만원



조현석 (89한의)  
부회장 100만원



최일상 (66경제)  
부회장 100만원



홍종표 (94행원)  
부회장 100만원

**하나되는 동국! 빛나는 동국!**

**1년 연회비 3만원**

국민은행 006001-04-274659

(예금주 : 송석환 동국대총동창회장)

#### 지도위원 회비

▲장재진 (91한문) 20

#### 일반 연회비

▲이승직 (71경제) 3

▲이재형 (79임학) 3

▲권기중 (60불교) 30

▲권오춘 (59영문) 3

▲김선근 (65인철) 30

▲김광영 (59경영) 3

▲유영수 (62행정) 30

▲김기포 (73경제) 3

▲정재기 (64정외) 30

▲김병우 (65응생) 10

▲김종덕 (66경영) 3

▲송영인 (63통계) 30

▲김병태 (60행정) 5

▲류기용 (07언원) 3

▲부회장 회비

▲도기수 (64법학) 10

▲박동훈 (84회계) 3

▲정일근 (69농경) 10

▲박인동 (79사회) 3

▲한승용 (05산업) 6

▲배상덕 (82경제) 10

▲백길웅 (85인철) 3

▲홍종표 (94행원) 80

▲양수성 (61경영) 10

▲안순한 (66상학) 3

▲우진스님 (03대학원) 10

▲오태갑 (58정치) 3

▲이천기 (64농경) 10

▲이범찬 (82행원) 3

▲대웅스님 (99불월) 20

▲이학균 (77사교) 10

▲이석준 (55정치) 2

▲류복수 (95사대원) 20

▲임식 (73체교) 10

▲신창섭 (75경영) 20

▲민경진 (59경제) 20

▲임치성 (88경제) 10

▲안창원 (66화학) 20

▲장수정 (63임학) 10

▲윤정민 (08한의) 20

▲정기영 (87정외) 10

#### 특별회비

#### 회관전립기금

총동창회 새 홈페이지

<http://dongguk.info>